

광주 고려인마을 방문객들 마을 매력에 '풍덩'

광산구, 올해 처음 골목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천900여명 참여...관광·경제 활성화 '역사마을' 조성

광주 광산구가 고려인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운영한 프로그램들이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역사·문화·체험 등 고려인마을 여행의 즐거움을 높이는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 9-11월 ▲고려인마을 골목여행 ▲고려인 전통음식 쿠킹클래스(요리교실) ▲고려인마을 문화장터 & 버스킹(거리공연) ▲마을교재 활용 청소년 고려인마을 역사문화탐방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였다.

고려인마을 골목여행은 강제 이주 역사, 항일·문화운동 등 고려인 역사·문화를 소재로 기획한 탐방 프로그램으로 총 75회 운영됐다. 방문객 1천800여명이 마을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채로운 코스를 즐겼다. 고려인 전통음식 쿠킹클래스는 총 20회 진행됐다. 315명이 참여해 '마트료시카(러시아 전통 인형)' 모양 쿠키, '리뽀시카(화덕 빵)', '마르코프차(당근김치)', '뽕밥(볶음밥)', '사슬릭(꼬치구이)' 등 10여종의 고려인 대표 먹거리를 만들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려인 이주 역사 마을교재를 활용한 청소년 고려인마을 역사문화탐방은 대만·미산·월곡초 등 3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400여명이 참여해 월곡고려인문화관 '결', 흥범도 장군 흉상이 있는 다모아어린이공원 등을 탐방하고, 고려인 음식, 문화 등을 체험했다. 9-11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다모아어린이공원에서는 '고려인마을 문화장터 & 버스킹'이 열렸다. 3회 행사 기간 음악·무대는 물론, 선·이주민이 함께 판매하는 중앙아시아 전통 소품과 다과 등 볼거리가 많아 총 42명의 시민이 다녀갔다. 광산구는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고려인마을이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지속해서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려인마을 곳곳에 벽화, 조각, 회화, 미디어아트 등 예술을 입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고려인 어르신 이 직접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골목여행, 마을교재 연계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등 광산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고려인마을이 특별하고, 독특하고, 유일한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며 "지역관광·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사마을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윤근기자



“나눔의 온정 함께해요” 연말을 맞아 세밀한 마음을 녹이는 구세군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도 어김없이 울려 퍼진 가운데 15일 광주 동구 충장로에 등장한 구세군 자선냄비에 시민들이 성금을 넣으며 나눔의 온정을 함께 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광주 도심 건물 유리창 '쇠구슬 테러'...경찰 수사

광주 도심 한 상가건물의 유리창 여러 곳이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에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지상 10층 상가건물 유리창이 쇠구슬에 의해 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지름 2.5cm의 쇠구슬을 발견했다. 창문은 2층부터 10층까지 총 9곳이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주성학기자

'존속살해' 김신혜 재심 결과 24년만에 나온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오는 18일 선고...재심 개시 9년만

아버지를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씨에 대한 재심 결과가 사건 발생 24년만, 재심 개시 9년만에 나온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재판을 연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00년 3월 7일 이른 오전 완도군 완도읍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A(당시 52세)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부터다. 현장 주변에

는 깨진 차량 방향 지시등 파편이 널브러져 있어 경찰은 뺑소니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시 결과 시신에서 어떠한 의상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수사 방향을 타살로 급선회했다. 그러던 중 자신을 피의자의 고모부라고 밝힌 신고자가 "조카가 아버지를 수면제 먹여 살해했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전했다. 때마침 나온 부검 결과 A씨의 시신에서는 다량의 수면제와 알코올을 성분 검출됐다. 경찰은 당시 23세의 김신혜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수면제를 양주에 타 아버지에 '간에 좋은 약'이라 말하고 먹였고, 아버지인 A씨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해 죽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수사 당국은 김씨가 A씨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도 있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대신 감옥에 갈 생각으로 거짓으로 자백했다"며 "아버지의 성추행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의 번복에도 불구하고 1·2심에 이은 대법원 상고심은 "김씨가 보험

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씨의 무죄 항변이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언론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결정적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의 섭외로 김씨를 만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들춰졌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김씨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확인됐으며 재심을 청구, 그해 말 1심 법원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됐고, 검찰이 계속 항고하면서 2018년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 사례였다. /안재영기자

'옛 전남도청 복원' 시민설명회 열린다

옛전남도청복원협, 18일 전일발당서...시민 의견 수렴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복원 전시 콘텐츠 대시민 설명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전일빌딩 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15일 밝혔다. 시민 설명회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옛전남도청복원범시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가 주최한다.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설명회에서 지난 9월 공개했던 전시 콘텐츠의 변경 사항과 시민 의견 수렴 내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전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의 사항도 수렴한다. 협의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전문가, 시민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옛 전남도청 복원에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가치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은 지난해 8월 공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80년 당시 소년들의 숭고한 정신과 스토리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부결 환영"

이정선 시교육감 "평등교육 보장 법적 장치"

광주시교육청은 15일 "주민 청구로 발의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부결에 대해 환영하며, 이 같은 결정이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제정돼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위해 학교와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해 교권 추락, 학력 저하

나 성적제성 혼란을 이유로 지난해 9월 광주지역 주민 1만388명의 서명을 받은 폐지안 청구가 올해 4월 시의회에 이뤄진 바 있다. 이후 폐지안에 대한 수리, 의견 청취, 시민 공청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 부결이 결정됐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이어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